


## 대전시 예술활동 확대 지원

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심의결과 발표

대전시청 제공 (기사입력: 2009/02/08 20:16) 

대전시는 지난 주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젊은예술가, 신진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 금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결과를 발표했다.

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9일까지 총 488건의 공모사업에 대한지원신청을 받아 지난 1. 30 ~ 2. 4까지 3회에 걸쳐 그룹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지원계획을 확정했다.

대전시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은 총 301개 사업에 10억7천6백만원으로 문예진흥기금사업 239건,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4건,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38건이다.

대전시는 금년도 문화예술 지원방향을 지역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, 시민모두가 고른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소외지역 및 시민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“찾아가는 공연”을 확대하며 대전문화예술의 대중화에 목표를 두고 소액다건 지원을 지양하고 가능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공모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.

3개 분야 공모사업의 평균 선정율은 62%로 지난해 보다 9% 낮아졌으며 문예진흥기금사업의 경우에 340건 신청에 239건을 선정하여 선정율은 지난해 보다 8% 낮은 70%로 떨어졌다.

시 관계자는 공연분야의 심사에 있어 이미 지원계획이 확정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모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사업,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내용과 연계 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, 무대공연작품제작,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등 3개 분야를 통합심사 함으로써 가능한 특정단체의 편중지원을 억제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.

분야별 사업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음악·연극·무용 부문은 전문예술단체와 생활예술단체를 구분하였고 젊은 예술가 등 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.

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은 창의적이며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발굴 육성하는 방향으로 선정 하였고,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, 원도심지역 등 문화소외지역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대중성 위주로 지원되도록 했다.

아울러 지난해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지원 제외하였으며,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239건중 28%에 해당하는 69건을 새로 선정하여 지난해 18%에 비해 신규단체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시는 올해도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.

대전시는 금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과정과 지원사업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오는 18일 오후 3시 시청 3층 대강당에서 지원대상 단체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.